“종정기관 위원 6년도 총무원장 피선거권 자격 준다”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 주요 안건

‘선거법 개정안’ 등 잇따라 만장일치
‘비구니 호계위원’ 종헌 개정 이월
‘중앙종회법’ 가결정족수 부족 부결
종정감사특위 위원장에 심우 스님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호계원장을 제외한 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계위원회·계단위원회·초심호계원·재심호계원 등 각급 종정기관의 위원장을 3년 이상, 위원직 6년 이상 역임하면 총무원장 피선거권 자격이 주어진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10일 서울 봉은문화회관 2층에서 열린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임시회는 재적의원 77명 중 66명이 참석해 개회한 후 12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앞당겨 하루 만에 폐회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인 명부 열람일을 명부 확정 후 5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가 끝난 즉시 투표지를 봉인하고 봉인된 투표지와 개표록 등 선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선거 직후 중앙선관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선광 스님은 “각 종정기관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모시고 있는데, 위원장을 했다고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오랫동안 활동한 위원들에게는 그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경력에 따른 형평성을 부여하고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을 산중총회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등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방장 추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산중총회법’은 이견이 많은 제8조 개정안을 삭제 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현재 산중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기관지 공고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소집 기일을 50일로 연장했다. 구성원명부에 누락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기재돼 있을 때는 구성원 명부 확정일 전 1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본사주지의 자격에 교육법 1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교역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 본사주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중앙종회에 추천할 총림 방장 후보자의 선출은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 고유 방식으로 하고, 산중 총의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 중앙종회법 제72조 제4항을 준용한다는 제8조 개정안은 “총림 소속 종회의원 스님들 간에도 의견이 다양해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다수 의원 스님들의 의견이 있어 개정안에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10일 서울 봉은문화회관 2층에서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열었다.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법계법 개정안’ ‘종단교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 ‘선학원정상화를위한특별법 개정안’ ‘총림법 개정안’ ‘교육법 개정안’도 잇따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안은 이월됐다. 관련 법안에 대해 원로의원, 호계위원, 계단위원과 긴밀한 소통과 자구 수정 과정을 거쳐 11월 정기회에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일부 스님들이 “우선 원로의원, 호계위원, 계단위원회 등에게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호계위원 9인 증원을 예측해서 올린 개정안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내면서 법안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종헌 개정안이 이월되면서 관련 호계원법 개정안도 함께 이월됐다.

초심호계위원을 7인에서 9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도 이월됐다. 이에 대해 보인 스님은 “그간 호계원이 종단 사법부로서 역할을 해왔다. 삼권분립이 명확한 상태에서 종헌 개정에 앞서 호계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화·보화 스님은 “호계원 초심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현행 초심위원 7명으로도 충분한 심판이 이뤄지고 있고, 정족수미달로 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극히 적다”며 “오히려 2인이 증원되면 심리와 심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광 스님은 “의견 수렴 과정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며 “숙고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원스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월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자의 행자교육 면제와 단기출가자의 단기출가기간을 행자교육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하는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은 발의자 요청으로 이월됐다.

대표 발의한 정범 스님은 “교육의 질이나 특정 학교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의원 스님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해 이번에 이월하고 출가장려 스님들과 종회의원 스님들의 의견을 물어 개정안을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쇠락한 공찰의 사격을 현저히 격상시킨 경우 중창주로 인정하는 ‘사찰법 개정안’도 긴 논의 끝에 이월됐다.

중앙종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종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사항을 종법으로 규정하는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가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도림 스님은 “호계원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각자의 관점에서 사안을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소신을 갖고 판결해온 호계원 스님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화 스님은 “현재도 개인 신상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의장 결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장시간 논의 끝에 거수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6표, 반대 16표, 기권 7표로 부결됐다. 종법 개정은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날 중앙종회는 탄무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소청심사위원에 일진 스님을 선출했고,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자로 법성·법수 스님을 복수 추천키로 했다. 또 교구본사,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수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종무행정감사를 위한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중앙종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심우 스님이 선출됐다. 종정감사특위는 11월 정기회 폐회 전까지 활동하며, 감사 대상 사찰 선정 및 감사반 편성은 의장단과 종정감사특별위원장,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에 위임했다.

종무보고와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는 문건으로 대체했고, 종책질의와 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은 11월 정기회로 이월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종책모임별로 종법과 종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서 종단 대의기구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계종 국장단 인사…총무국장 담산 스님

진우 스님 9월 9일 임명장 수여
“종단 운영 공백 없도록 노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임기 3주년을 맞아 최근 대규모 총무원 부실장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국장단 인사도 마무리했다.

진우 스님은 9월 9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새롭게 소임을 맡게 된 총무국장 담산 스님을 비롯한 국장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



이날 총무부 총무국장에 담산 스님, 기획실 기획국장에 철인 스님, 기획실 감사국장에 하원 스님, 포교부 포교국장에 도진 스님, 교육부 복지국장에 청곡 스님, 문화부 문화국장에 성만 스님, 사회부 사회국장에 선일 스님, 호법부 호법국장에 진효 스님이 임명됐다.

또 호법부 상임감찰 명원·혜일·혜담 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 혜오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상원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 일학 스님,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부소장 신해 스님이 임명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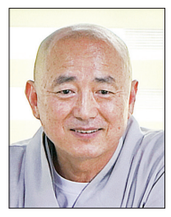
진우 스님은 임명장 전달 후 “새로 소임을 맡은 국장 스님들이 많은데, 부실장 스님과 기관장 스님을 잘 보필하고 동료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조속히 파악해 종단 운영에 공백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실장 스님과 종무원 사이의 가교역할을 잘하고, 종단이 안정될 수 있도록 포교·전법 등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장에 각진 스님

9월 5일, 비밀투표서 8표 받아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장에 중앙종회의원 각진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9월 5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132차 회의를 열고, 오심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새 위원장에 각진 스님을 선출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부위원장에는 중앙종회의원 탄원 스님, 간사에는 중앙종회의원 각연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회의는 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위원장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으며, 투표 결과는 각진 스님이 8표, 오심 스님이 5표, 무효 1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종책특보에 각림 스님 임명

진우 스님, 9월 9일 임명장

조계종 종책특보에 중앙종회의원 각림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9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신임 종책특보 각림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각림 스님은 다선 종회의원으로 종무행정을 두루 경험하고, 문화 분야에 다양한 활동 경력이 있다”고 말했다.

각림 스님은 “불교문화유산을 보존·발전시키고 종책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내영 기자



